

금요 양성 2025년 10월 31일 자매인 죽음

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

11월은 전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자매인 죽음에 대해 평생 묵상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의 마지막을 향하여 갈 때, 그는 태양 형제의 노래에서 육신의 죽음 자매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내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살아 있는 어느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불행하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죽는 이들이여!

복되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두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이다.” [프란치스칸 원천 1권 135쪽]

우리의 회칙과 회헌은 죽은 형제 자매들과 친교안에 머물러 있도록 요청합니다.

회칙, 19조: 자매인 죽음의 참 뜻을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회원은 성부와와의 결정적 만남을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회칙, 24조: 모든 이가 형제회 생활에 열심하도록 격려하며 프란치스칸 삶과 교회의 삶이 향상되도록 더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 친교는 사망한 형제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바쳐 줌으로써 그들과도 지속된다.

회헌, 27.2 조: 회원은 자기 주위에서, 특히 형제회 안에서 믿음과 희망의 분위기를 만들어, 모든 이가 ‘자매인 죽음’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보고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다.

1736년 교황 클레멘스 12세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톨릭 전통이 있는데, 모든 가톨릭 교우들은 그리스도안에서 사망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깊은 구렁속에서 (De Profundis)” 라고 알려진 시편 130편을 기도한 후에 영원한 안식을 구하는 짧은 기도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를 바칠것을 권한다.

시편 130편 “깊은 구렁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I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²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³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⁴그러나 당신께서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II

⁵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⁶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기 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 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⁷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으니, ⁸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11월 한 달동안 기도 파트너와 아니면 형제회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시오.

+ 가족 중 돌아가신 분들을 기도중에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 당신의 형제회는 (단위, 지구, 국가이든 간에)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 당신의 단위 형제회는 작고한 회원들을 위한 회고 예절을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시오.

도전: 이번 달은 죽은 사람들, 특히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서 **깊은 구렁속에서 (시편 130)**을 기도하시오.